

남해안 관광벨트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등 국회 찾아 서남권 관광 융복합 18개 사업 문체부 남부권 개발계획 포함 요청

전남도가 민선7기 역점사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과 해양·내륙관광을 연계한 전남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주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전남지역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포함한 전남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문체부의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줄 것을 건넜다.

문체부는 현재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전남을 비롯해 광주,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서남권, 남중권,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광역관광권을 정해 지역 핵심 거점 구축의 융복합거점사업과 지역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후 권역별 우선순위를 정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이날 국회에서 문체부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해양웰니스 토탈힐링 치유관광거점 조성 등 18개 융복합거점사업(서남권 10개·남중권 8개) 반영을 요청했다. 또 광역 관광연계 교통망 시스템 고도화 등 연계협력사업(6개)으로 5300억원 규모의 24개 도 발굴사업 반영을 부탁했다.

김병주 국장은 국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과 김원이(목포),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등 발굴사업이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필요성을 설

명했다. 이어 영·호남의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점을 강조하며 총 사업비의 증액과 지역 관광기반 여건을 고려한 지역 현안사업 선정을 적극 당부했다. 김 국장은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국토발전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지역 발굴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영·호남이 연계한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남해안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0일 전남 관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제1차 민·산·학·관·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광업계, 지역 학계, 연구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기능의 소통채널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전남도 방문의 해와 관련해 특화 프로그램 개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청결 전남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 맞이 환경조성, 봄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 및 순회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100t급 신규 어업지도선 2척 취항

전남도가 최근 여수 엑스포항 일원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건조한 신규 어업지도선 2척의 취항식을 열었다. <사진>

취항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여수시장, 남해어업관리단장, 여수해경서장, 관내 수협조합장 등 해양수산 기관·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수산자원과장의 건조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김영록 지사의 명명패 전달, 건조 관계자 감사패 수여 및 취항 기념 테이프 커팅식, 전남210호 어업지도선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취항한 전남204호(118t)와 전남210호(136t)는 선령 26년 이상으로 노후한 어업지도선(33t,

60t)을 대체하기 위해 2019년부터 150억원을 들여 건조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연근해어선 안전 조업지도, 해난사고 대응, 적조 예방 활동 등 다양한 임무에 나선다. 신규 어업지도선 2척의 선체 하부는 강선, 상부는 알루미늄으로 건조해 내구성, 복원성, 경량성을 동시에 확보했고,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최대속력 25노트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최첨단 항해·통신장비, 주야간 불법 조업어선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및 8.5M급 고속단정(최대속력 45노트)을 탑재해 기동성과 업무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면역력 뛰어난 전남 숲길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 치유하세요

전남도 올 128km 구간 조성·정비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치유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숲길 인프라 확충 및 홍보에 나선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숲길 정비사업은 기존 숲길을 정비하고 신규 트레킹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 83억원을 들여 128km 구간을 조성·정비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밀집된 실내활동을 피하고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한적한 숲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숲길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이다.

생활권 등산로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 정비한다.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과 연계한 연진산 둘레길을 신규 조성함으로써 전남 일원에 총 4182km의 숲길이 운영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쉽게 즐길 숲속 걷기 서비스를 하고 숲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걷고 싶은 전남 으뜸 숲길'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걷고 싶은 전남 으뜸 숲길은 워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산림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하고 남도의 우수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가 코로나 19로 지친 도민과 외지인들을 위해 올해 128km의 숲길을 정비하고 신규 트레킹길을 조성한다. 사진은 담양 추월산 수행자길. <전남도 제공>

지난해 선정된 걷고 싶은 숲길 12개소에는 등산객의 발길이 늘고 있다. 전남도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숲길 랜선여행' 영상은 새로운 산림휴양 콘텐츠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리산 밤재-현천마을길 ▲목포 유달산

천년숲길 ▲곡성 섬진강 둘레길은 봄철 아름다운 숲길로 유명하고, 이용객 만족도도 높다. 전남도는 올해도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숲길을 선정해 산촌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숲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3월 전통주에 해남 해창생막걸리 선정

전남도는 맛과 향이 진한 프리미엄 막걸리인 해창주장의 '해창생막걸리'를 3월의 남도 전통주로 선정했다.

'해창생막걸리'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해풍 맞으며 자란 유기농 쌀과 찹쌀로 빚은 막걸리다.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고 쌀에서 나온 단맛으로 맛을 낸 웰빙식품이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자연 숙성으로 숙성 기간이 길어 대량생산은 어렵지만 막걸리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트림이 나오지 않고 숙취가 없다. 제품은 6·9·12·15·18도 총 5가지 도수로 구성됐다. 용기 라벨은 '식객' 허영만 화백의 작품으로 술의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가장 높은 도수인 '해창18도'는 네 번 덧술한 사양주다. 목 넘김은 부드럽

로우나 농도가 진해 걸쭉하고, 찹쌀이 들어가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 한 병에 11만 원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막걸리지만, 출고 때마다 완판돼 '없어서 못 마시는 술'로 유명하다.

오병인 대표는 "감미료를 넣지 않고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 본연의 맛을 살린 고급 막걸리"라며 "한민족 고유의 술인 만큼 국격에 맞는 고품질 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창주조장은 1927년 일본인 시바다 히로헤이 씨가 정미소와 양조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당시 조성된 정원이 아름다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에도 선정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해상풍력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 전문가 초청 착수 보고회

전남도가 지역 미래 100년을 책임질 확실한 먹거리 사업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산업발전 단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와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해상풍력 기자재·부품 등 연관기업 유치와 관련 제조업 육성 등 글로벌 수준의 산업생태계 조성 의지를 다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지역 업체 중심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생태계 조성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해상풍력 산업구조 분석, 국내외 기업 동향 파악, 해상풍력 부품 제조·조립 단지 현황조사 및 배치계획, 도내 해상풍력 연관기업 발굴·육성 계획, 국내외 기업 유치 방안, 해상풍력 국산 기자재 개발 R&D 과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참조기·부세 양식산업화 재결음 종자생산 9개 어가에 수정란 1만2000cc 분양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역 특화품종인 참조기와 부세 양식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정란 1만2000cc를 생산해 도내 종자생산 9개 어가에 분양했다.

분양한 수정란은 참조기와 부세를 대형어로 키우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산란 시기의 환경조

절을 통해 평소보다 3개월 앞당겨 생산한 것이다. 일찍 생산한 수정란에서 부화한 종자는 연내에 상품 크기(100g 이상)로 키우는 것이 가능해 양식어가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정란 분양 어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종자생산 과정 모니터링을 해 참조기·부세 종자생산

기술 확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참조기·부세 양식산업화를 위해 '전남 수산 10대 핵심 전략품종 선정관리', '인공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400억원) 사업 선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